

buddhanews.com

모든 것을 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꼭 돌아님을 알아야

25면에서 계속

래서 귀뜸을 해 줘야 이렇게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되는 도리를 어찌 알아서 산은 산대로 있고 물은 물대로 있는 도리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퇴위 주면서, 귀를 퇴위 주면서 해야죠.

풍수나 지리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질문: 사람이 사는 집이나 죽은 사람의 산소를 잘못 쓰면 나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왜 그런 것이지요? 저희처럼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풍수나 지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변: 신라 때에 한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아주 선비 중의 선비가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가난한 데다 등과도 못하다 보니까, 사람이 지금도 살려면 그런 수가 많지마는 여간 힘들지가 않았고, 부모가 돌아가셔도 풍수(風水)를 봐서 좋은 자리를 찾을 형편이 못되었답니다.

가난하니까 돈을 들여서 풍수에 좋은 걸 살 수도 없고 그런 관계상 고구려로 넘어가서 조연을 받기 위해서 어느 스님, 예전에도 선지식 되시는 분들이 아마 몇 분이 거기서 은거하셨던 모양입니다. 거길 찾아가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부모를 모셔야 될 텐데 저희는 오형제나 되고 여자 동생들이 셋이고 그래서 팔남매나 됩니다. 그랬는데 팔남매 중에서 하나도 사람 노릇을 못하고, 각자 그저 각성(各姓)바지처럼 이리 뜯고 저리 뜯고 그러니, 부자도 싫고 권위도 싫고, 단 하나 있다면 화목하게, 형제들이 화목한 거를 바라겠습니다." 하고 화목하려면 묘지를 어떻게 써야만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니 스님께서, 산 부처가 생각을 하니까 참 기특하게든요. 사람이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어, 그 말 한마디에, 그래서 생각을 하기를 '너희 형제들이 화목하려면 관목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해 주신 겁니다. 금에다가 빛을 내게 하고 이자를 더 붙여 준 겁니다. 한생각이,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네 부모를 가매장한 것을 그냥 두고, 이 고구려에만 좋은 땅이 있는 게 아니다. 모두 눈물이 멀고 귀가 쫄아져서 못해서 그러한 것이다. 오혈(五血)을 쥐고 있는 관계를, 오혈맥(五血脈)이 한 손에 들어 있느냐. 그러니 네가 가다가 발끝이 그냥 멈추었을 때, 즉 말하자면 멈춰서 가지 않을 때 그 자리에다 묻어라." 했거든요. 가다가 발이 멈춰질 때 그 자리가 좋은 줄 알고 묻어라 그랬거든요.

그랬으니 이 선비는 그 뜻도 모르지만 하여튼 믿었죠. 그 당시 신라의 땅은, 저 왜 지붕 위에 있는 거 됩니까? 굽벙이 있죠? 굽벙이 이렇게 등글게 우그리진 것같이, 신라 땅이 그렇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고구려 땅은 네 각이 지면서 아래로 평

피졌었던 그때 당시였던 말입니다. 지금은 다 변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좋은 땅을 찾아서 다니려고 했는데 그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믿고 어느 산모퉁이를 오다가 들러리니까, 길이 있고 개굴창이 있고 그러는데 아! 하필이면 말입니다. 거길 가는데 딱 멈춰졌단 말입니다. 이걸 어떡합니까? 자기가 보서는 도무지 여기다 묻어서는 안 되겠는데, 그 자리에는 바위도 있고 바위 밑에 물이 흐르고 그러는 자리인데 아, 가다가 딱 멈춰 가지고는 영 발이 떼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한테 아마 내가 그렇게 하였으면 그대로 하겠습니까? 물도 질척질척하고 그런데 누가 거기다 묻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그분은 믿었습니다. '좋다! 스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으니여 여기다 묻자.' 그리고

그랬는데 선비 꿈에 말입니다. "아들아, 너희는 내 집이 이렇게 없어진 것도 모르느냐? 모르느냐?" 하고 자꾸 와서 그래요. 그래서 형제가 가 보니 산소가 자기네들이 해 놓은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스님한테 또 갔습니다. 가니까 하는 소리가 "그거를 또 뺏으려면 싸움이 나. 그러니 내버려둬라." 그러고선 "오 개천 너머로 넘어가면 너희 아버지 뼈가 전부 날려져 있느니라. 그러니 그거를 하얀 백자에다가 전부 주워서 상자에 담아 놔다가, 네가 또 밭 달는 데로 갔다가 물어라." 이러거든요. 그러니 싸움을 시키지 않고 그냥 했는데 그 정승은 정승의 자리도 떨어지고 집이 폭삭 망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 스님이 쾌찍하게 생각을 했던 거지마는, 그 사람 자체가 그렇게 욕심이 많고 나쁘니까,

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돌아가게 하되, 그 영향이 자기한테 에너지로 오게끔 만들어서 그 묘지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백혈 즉, 백호라고도 그러니까, 또 청혈·황혈 이게 쌍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홍혈·석혈 또 수혈 이런 것이, 즉 말하자면 다섯 가지의 혈을, 혈맥을 그것을 백호에서 주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심(心)이 전부 이 몸을 이끌어 가지고 가듯 말입니다. 그것을 한데 합친 것을, 다섯 가지가 한데 합친 것을 오혈맥(五血脈)이라고 하죠.

이것은 내가 책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 이해해 주세요.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혈(五血)이 한데, 혈이 한데 모아졌다가 다시 분산돼서 나가듯이 여러 혈이 한데 모아졌다가 다시 모아지는 반면에 다시 분산돼서 전체를 다 통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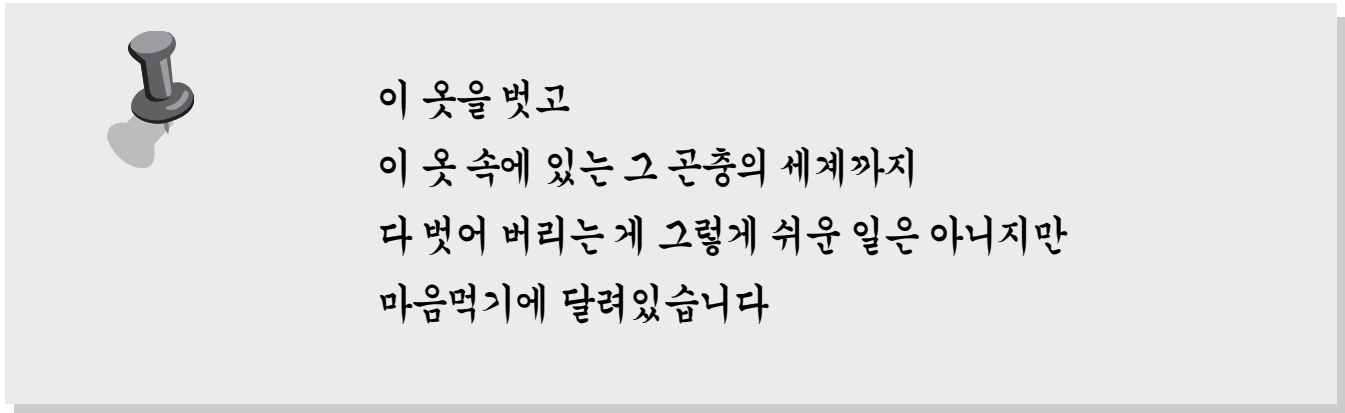
그분은 정돈을 잘해서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혈액도 우리 인간의 몸의 혈액과 같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우주의 섭리나 지리나, 산, 물, 한울, 삼위일체가 다 이 손 안에서 구된다면 오혈맥(五血脈)이 다 이 손 안에서, 한생각 안에서 다 구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내가 가면 가는 대로,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여기 좋구나!' 하면 좋은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아, 우리는 화목해야겠다. 또 뭐를 어떻게 해야겠다. 난 관복(官祿)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묻는다면 그 자리가 그대로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의 땅 형편으로 봐서 그런 산 지리나 보러 다니게끔 돼 있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산 자리를 봐서 좋다 하더라도 묻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전같이 그렇게 돼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서 어디에나 묻어도 좋고, 또 예전부터 불가에서는 화장(火葬)을 합니다. 대비식(奈屍式) 하는 것이 바로 화장이죠. 화장을 했어도 육은, 즉 말하자면 구더기가 파리가 되고 난 뒤의 껍데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옷이 더러우면 옷 벗어 버리듯이 우리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았다면 갈 곳도 없는 것을...' 하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냥 태워 버리는 거죠.

몸에다 착을 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유는 내가 옷 벗어 버릴 때에 수월하게 벗어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콩 껍질을 벗길 때 털 익었으면 콩 속살이 붙어 가지고 까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그게 안 떨어지니까, 아픈 지 삼 년이다 오 년이다 온통 고생을 하고 이렇게 죽습니다. 그걸 익은 거라면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딱 떨어집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몸에다 착을 두지 않아도 심그림계 실상으로서의 그대로 삼위일체로 회전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금 이 혈(血)을 볼 때, 어디는 어떻게 어디는 어떻게 이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지금 각본대로, 운명대로 좋으면 좋은 거, 언짢으면 언짢은 거, 자기가 한 거만치 그대로 받게 됩니다. 또 토질·혈·맥(脈)이 나쁜 것만치 생애들이 나빠지고 나무들이 나빠져서 열매가 작아지는 수도 있고 커지는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은 자리에다 묘를 써도 그 마음에 따라 잘되고 잘못되고 그렇듯이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각본대로 받게 돼 있거든요. 팔자 운명 이런 것이 말입니다. 각본대로 나오는 걸 나오는 그 자리에다가 다시 놓아라 그 소리입니다. 다시 놓으면 테이프에 감긴 것이 다 지워집니다. 이걸 비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업보대로, 각본대로 나오지만 다 녹아서 지금 현상에서 영원토록 참자유인이 돼서 살면 영원토록 미래 과거도 없이 자유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옷을 벗고
이 옷 속에 있는 그 곤충의 세계까지
다 벗어 버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거기다가 표시를 해 놓은 부지런히 가서 동생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거길 갔습니다. 파니까 웬걸요, 파니까 그 위만 질척질척하지 밑은 금빛이 나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묻으려고 파는데 나중엔 다각다각거려서 보니까 돌로다가 아예 장식이 됐습니다. 밑바닥이 돌보다가 장식이 돼 있고, 옆으로는 돌이 천연적으로 아주, 그 옛날에 하얀 돌 있죠? 그런 것이 평평하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모시고서 그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한 술 더 퍼서 관운을 갖게 됐고 이름을 갖게 됐고 또 화목을 갖게 됐고 재산을 갖게 됐어요. 재산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밥은 굶지 않게 됐다고 소립니다.

그렇게 됐는데 어느 대갓집에서 정승으로서의 권위가 당당한 분이 풍수를 봤는데 도대체 그 산 거기밖에는 그렇게 좋은 데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 선비가 묘지 쓴 데 거기 말입니다. 그러니 그 권위 있는 사람이 몰래 돈을 많이 주고 사람을 사가지고 그걸 파 버리고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묻었던 말입니다. 유골을, 탄 산소에 있는 걸 파다가 남의 묘지에다가 묻고선 그 묘지에 있는 뼈는 그냥 다 팽개친 겁니다.

그 스님이 그렇게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 판사가 알람계 보면 한 번 더 굶는단 말입니다. 한 번 더 거서 십 년 받을 거 이십 년 받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좌쪽만 한 번 더 널으면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 업을 받을 건데도 거기다 덧붙여서 스님께서 '참, 이놈 나쁜 놈이구나.' 했겠죠. 그러니 얼마나 업이 거기에 덧 붙여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이 망하고 나니까 거기다 묘지를 써서 그렇게 됐다고 그걸 또 다 캐 갔습니다. 다 캐 가니까 그 스님이 있다 하시는 소리가 "저기다가 또 써 돼는니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실랑 거기다 또 물어라. 관찮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삼형제가 관복을 먹고 다 잘했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 산맥(山脈)이라는 것이 토질에 따라서, 혈액(血脈)에 따라서 무정물이나 식물이나 생물의 생태도 변질이 됩니다. 이것이 따지고 보면 거기 토질과 혈액에 의해서 부패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잘 다져질 수도 있고, 즉 말하자면 알칼리성, 산성이 한데 혼합이 된 땅이 있는 거 하면 그것이 분산된 땅이 있던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합일돼서 혈액이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가, 그것도 혈액 위에다가 묻

꿈, 무전통신이 통하게끔 돼 있는 혈이 있습니다. 그 혈에는 사람의 머리, 정수리, 그러니까 백두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혈에서 모든 것이 머리로 인해 오관을 통해서 발끝까지 다 통하듯이,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해서 들으세요. 발끝까지 다 통해서 그렇게 하듯이, 이 무르팍 뼈, 손목 뼈 중요하죠. 팔뚝꿈치, 옆 겨드랑이 뼈, 발 이것도 다 중요한 자립니다. 그렇듯이 산도 그렇게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혈맥을 다 칠 수 있어서 내가 자유권을 가졌을 때는 지리도, 마음공부를 해서 자유롭게 가졌을 때는 내가 나를 자각해서 내가 마음대로 오운(五運)을 다, '오운' 하면은 벌써 거기는 오신통(五神通)이 들어가죠. 다섯 개의 그 주(株)가 들어가죠. 그거를 한데 합쳐서 동시에 스스로 굴릴 수 있는 자동적인 자기 자성(自性)이라면, 그것조차도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가 그랬던 것처럼, 왜 똑같은 자리에다 묻어서 잘되는 사람이 있고 묻어서 안되는 사람이 있었단가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에 달린 겁니다.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오실 때는 '그저 그렇지.' 하고 오면 그르치고, 마음을 다지고 정돈을 잘해서 오시면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사.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약 · 기사제보... 연락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활동 지역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부산일원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대구일원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충북 / 충남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밀양 / 창령 / 의령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김해 / 마산 / 거제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광주 / 전남지역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전북지역	063)910-5199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영주 / 문경 / 봉화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남해/고성/서천/함양/진주	055)746-9778 / 011-870-0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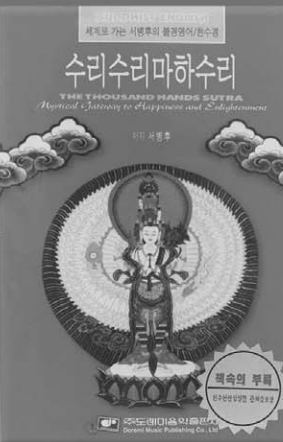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 · 천수경 수리수리마하수리

THE THOUSAND HANDS SUTRA

Mystical Gateway to Happiness and Enlightenment



책 1권, 오디오테이프 3개포함
20,000원 → ₩ 14,000원
저자 서병후 | 156쪽 | A5
출판사 : 도래미음악출판사



보다 활발한 한국 불교의 해외 포교, 그리고 신세대 지식인들에 의한 넓은 시야의 불교 공부와 수행을 위한 기본적 불경 영어 가이드로서 기획된 이 책은 천수경을 첫 텍스트로 했습니다. 영어화된 산스크리트어는 영어로 다루고, 그 표기도 표준적 국제 시스템에 따랐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의 감로를 내려주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구원의 염원이 담긴 천수경의 신비스런 비밀공식이 우리들 앞에 펼쳐집니다.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불교를 연구해 왔고, 풍부한 영어교육경험을 갖춘 필자가 선사하는 최초의 영어완역 천수경과 현대적 시각의 주해, 통쾌할 정도로 행간을 꿰뚫는 새로운 해석은 우리들을 감동케 할것입니다.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